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살 수 있나요?

병원에서는 전화로 감염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의사와 대면해야만 알려 준다고 하셨는데요. 만일 제가 계속 병원진료를 안 받는다면 저는 영원히 감염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검사한지 약 한 달 정도 됐구요, 이들 전이 진료 받는 날인데 병원엘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간호사한테서 왜 안 왔냐고 진료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까지 온 것을 보면 감염된 게 확실한 것 같아 두려워서 지금도 병원엘 못 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안가면 전 영원히 감염사실을 모른 채로 살수도 있는 것이지요.

A 검사결과 양성이라면 병원에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시면 그 결과는 의사가 직접 진료시간에 결과를 말해줍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환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그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달되고,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가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려줄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여 본인에게만 전달되도록 주의합니다.

에이즈는 이제 치료만 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질환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선생님과 면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한 순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만의하나 결과가 에이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사선생님께서 이후 대처방법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간호사가 피검자의 검사결과를 위해 다시 방문해 줄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은 일상 업무입니다. 막연히 불안해 하지만 마시고 시원하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결과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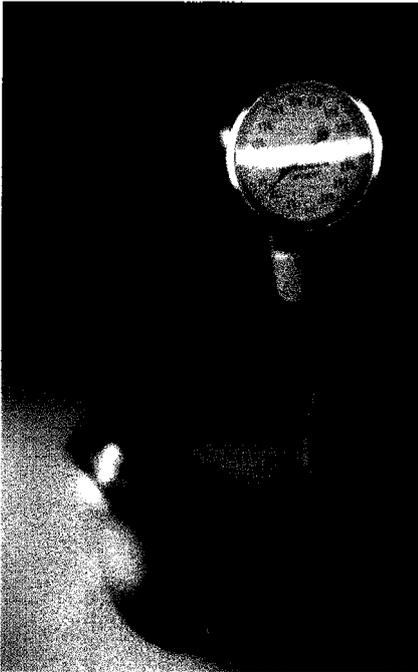
익명 검사에 대해...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 피검사 같은 걸 하면서 에이즈 검사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가명이나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면 안되죠? 병원에서는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말하면 신상정보가 뜨잖아요. 그게 병원 측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저장을 해 뒀서 뜨는 건가요 아니면 신상정보 같은 조회를 통해서 주민번호만 대면 이름과 주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환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그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달되고,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가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려줄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여 본인에게만 전달되도록 주의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접수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 내 임상병리실로 들어가셔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보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1~2주 정도 걸리며, 검사 결과는 다시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가 다 뜨는 건가요? 만약 일반 피검사를 통한 건강 검진과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면 이때는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명과 아무 주민번호나 지어서 그리고 주소도 말해도 그 분들이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A 익명 검사 가능합니다.

작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소든 병원이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피검진자에게 익명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접수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 내 임상병리실로 들어가셔서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보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1~2주 정도 걸리며, 검사 결과는 다시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다른 혈액검사와 에이즈 검사를 함께 받게 되면 다른 혈액검사는 검사비용이 청구되며, 실명으로 접수를 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익명으로 받고자 한다면 에이즈 검사만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시면 검사료가 무료이지만 병원에서는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므로 익명 검사를 요구하시면 에이즈 검사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에이즈 검사는 보험에 적용되는 검사가 아니기에 실명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협회에서도 무료, 익명으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드리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 좀 드릴까요.

요새 포비아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점점 현실감을 잃어 가는 것 같구요. 제가 걱정한 형태는 이런 것인데요. 버스에 누군가 같이 타고 가다가 내릴 때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은 걸 보면 괜히 무슨 짓을 한 것만 같고... 예를 들면 혈액을 묻혀 놨다거나... 새로 산 물건에서 따끔거렸을 때도 정전기를 의심하기 보단 먼저 누군가 무슨 짓을 했을 것이라 생각부터 드네요. 전혀 육안으로 봤을 때 상처나 피는 흐르지 않는데 말이죠. 자꾸 누군가가 에이즈에 대해서 잘 노리는 것만 같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은 없겠죠? 누군가가 악의로 그러다는 것, 에이즈란 경로가 명확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네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요?

A 마음 편히 지내세요.

에이즈 감염경로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지만,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접촉이나 기물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드시군요. 포비아 생활

을 하시는 분들의 일상은 님의 경우와 같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HIV(에이즈원인바이러스)는 매우 약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경로의 약 99%가 성접촉입니다.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만졌거나 새로 산 물건을 만졌거나 하는 일로는 감염되지 않으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그런 일로 감염인 일어난다면, 에이즈 전파 속도는 기히 검사를 수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님께서는 막연한 짐작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을까 봐 걱정하고 있으시네요, 우리 마음은 일어났을 것 같다는 착각에 걸리면 불안으로 치달기 마련입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해 질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 둔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방황하며 지내던 중 누군가가 일 안하고 있으면 실업 급여 신청 한번 해 보라고 해서요, 알아보니까 자신의 질병이 있으면 해당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질병 사유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또 질병 확인서 같은 것을 떼어 오라고 하면 뭐라고 표기 되는지요. 지금 근무한 회사는 대략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A 실업 급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염 후 실직은 많은 고통을 동반하며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재취업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네요. 부디 원하시는 일자리를 구하셔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실업 급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란 직장의 폐쇄, 권고사직, 부도, 일방적 퇴사 요구 등 자진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요구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에이즈 때문에 퇴사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질병으로 허위 증빙 서류로는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렵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근무 중이던 직장에서 업주의 날인이 명시된 퇴사 사유서를 요청하여 발급 후 노동부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근무연수와 월 급여(기본급)를 확인 후 이에 준하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염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의 폐쇄, 권고사직, 부도, 일방적 퇴사 요구 등 자진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요구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에이즈 때문에 퇴사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질병으로 허위 증빙 서류로는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렵겠습니다.